

보도시점 2026. 5. 5.(화) 12:00 / 배포 2026. 5. 4.(월)  
 < 5. 6.(수) 조간 >

#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(ICN) 연차총회 참석

- 전략적·효과적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고위급 간 논의 -

**※ 휴일 엠바고 주의 : 5월 5일(화요일) 12:00 부터 보도 가능 ※**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‘공정위’)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(이하 ‘주 위원장’)을 수석대표로 하여 5월 6일(수)부터 8일(금)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‘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(이하 ‘ICN’,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) 연차총회’에 참석할 예정이다.

\* ICN은 2001년에 설립된 협의체로, 현재 미국(연방거래위원회·법무부), EU(경쟁총국), 일본(공정취인위원회) 등 전 세계 148개 경쟁당국이 참여 중임.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 제3차 연차총회, 2005년 및 2025년 카르텔 분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음

이번 제25차 ICN 연차총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(이하 ‘PCC’, 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) 주최로 진행될 예정이며, ▲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, ▲디지털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담합 대응, ▲변화하는 경제 여건에서 기업결합 정책, ▲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간 균형 및 ▲혁신적인 경쟁주창 방안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.

구분		논의 주제
작업반 주관	효과성	▶ 기민하고 미래지향적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
	기업결합	▶ 계속 변화하는 경제·정치·환경: 기업결합 정책은 충분히 유연한가?
	단독행위	▶ 단독행위 집행에서의 실효성·예측가능성·정확성 간 균형
	경쟁주창	▶ 혁신적인 경쟁주창 방법
	카르텔	▶ 디지털 시대의 알고리즘 담합과 카르텔 집행의 도전과제
PCC 주관		▶ 과거로부터의 교훈과 다가오는 과제: 지역 협력의 새로운 지평 모색

현재 전세계 경쟁당국은 AI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, 복합적인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. 이에 주 위원장은 5월 6일(수)에 개최되는 ‘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’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서 그리스, 헝가리, 영국, 케냐 및 폴리네시아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\*들과 함께 각 경쟁당국의 문제인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
\* 아이린 샤프(Irene Sharpe) 그리스 경쟁위원회 위원장, 가보르 갈(Gábor GÁL) 헝가리 경쟁청 상임위원, 크리스 프레벳(Chris Prevett) 영국 경쟁시장청 수석법률고문, 데이비드 케메이(David K Kemei) 케냐 경쟁당국 이사회 의장, 요한나 페이르(Johanne Peyre) 폴리네시아 경쟁당국 위원장

주 위원장은 서두에서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주요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. 그는 “경제력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”라고 강조하며, 아울러 대·중소기업 간 격차와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로 인한 불공정행위 역시 주요 현안으로 지적할 전망이다. 이어 이러한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경쟁당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.

먼저, 과징금 제도 개편 및 형벌 완화 등 제재 수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을 소개할 것이다. 더불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,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, 소비자 단체소송의 금지 청구범위 확장 등 사적 구제 수단을 확충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,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설명할 예정이다. 아울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거래 안전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힐 것이다.

또한 주 위원장은 이번 연차총회 기간 중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,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 및 유럽경쟁총국 등 주요 경쟁당국의 수장들과 고위급 양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 나아가 필리핀 경쟁당국과는 경쟁법 집행 분야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, 이번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.

주 위원장은 “이번 필리핀 방문은,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경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,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	책임자	과 장	김민지 (044-200-4315)
		담당자	사무관	권유현 (044-200-4326)
			사무관	최나슬 (044-200-4320)

